

왜? ... 15명이 던진 질문, 새로운 세상 열었다

세상을 바꾼 질문들

김경민 지음

신동도 천재도 아니었다. 그의 재능은 어린 나이에 꽃피지도 않았고,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력의 이상이 오면서 죽 음까지 생각했다. 또 26살 때 이런 유서도 남겼다. “아아, 나에게 주어진 것과 느끼고 있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나로서는 못할 노릇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참한 목숨을 이어왔다” 삶의 고통을 극복한 그는 먼 훗날 제자 체르니에에게 자신이 작곡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작곡을 하는 거야” 악성 베토벤을 만든 건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삶의 작은 질문 하나가 역사를 바꾼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김경



민 ‘세상을 바꾼 질문들’을 보면 된다. 이 책은 16세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뒤바꾼 생각의 혁명이 15명의 질문 이야기를 다룬다.

무엇이 그들에게 의문을 품게 했고,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돌아본다.

의문은 이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천재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으로 세상을 뒤집어놓았다. 다윈은 “인간은 정말 신이 창조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이견 반역이었다. 신을 굳게 믿는 세상에 살면서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의문 중에서도 엄청난 것들에 속한다.

현실을 잠시 떠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수많은 의문을 품기에 좋은 방법이다.

다윈은 자서전을 통해 “비글호 항해는 내 진로를 송두리째 결정 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나는 내 정신세계가 실제 적으로 형성되거나 훈련된 것이 아니며 덕분이라고 늘 생각했다”고

털어 놓는다.

숲 안에서 숲을 볼 수 없듯 의문도 현실의 모든 것을 내려놓 았을 때 더 잘 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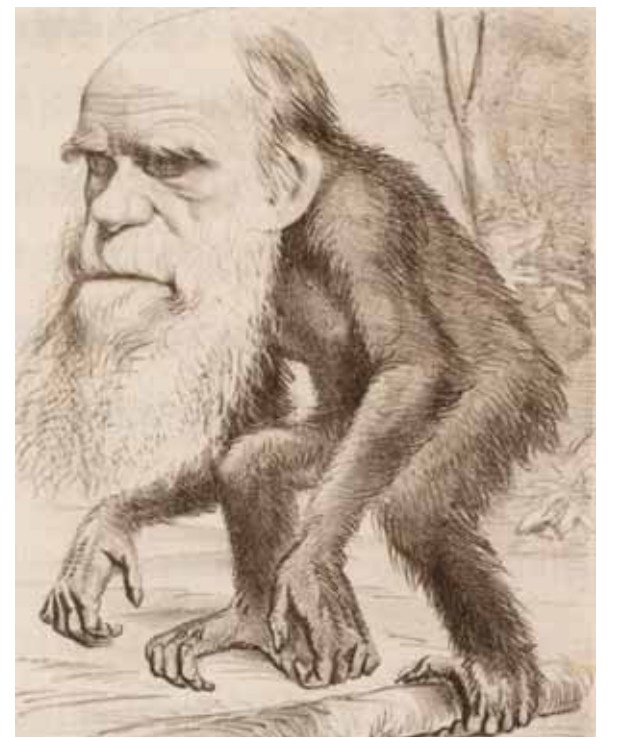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예도 비슷하다.

해부학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학 시간에 해부 는 안 하고 이론만 가르치는 데 회의를 품고 직접 시체 해부에 나 선다. 이는 의학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

혁명가 막시밀리안 드 로베스피에르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포 정치 시대에 오로지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을 생각하며 혁명을 도 모한다. 누구도 쉽게 뛰어넘지 못한 길, 그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꿈의 실천자였다.

여성 운동의 효시로 꼽히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왜 여성 인 딸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가?” 질문하며 부조리한 현실에 의문을 품었다. 때문 술한 의문은 고난을 예고하기도 하다. 그녀 는 ‘여성의 권리 옹호’를 출간하고 고난의 역정에 가까이 뛰어들 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871년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 출간 직후 나온 다윈의 진화론을 풍자한 캐리커처. 〈을유문화사 제공〉

박정희와 박태준... 완전한 신뢰의 인간관계

대한민국의 위대한 만남...

이대환 지음

광복 70돌, 우리는 ‘믿음을 주는 정치동네, 신뢰를 주는 권력동네’에 목 말라 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의 정치’, ‘신뢰의 권력’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신뢰로 위대한 일을 창조한 롤모델이 우리의 ‘권력동네’에는 없을까? 누군가는 저마다의 관점으로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 가운데 박정희와 박태준은 절 대적이고 완전하게 신뢰했던 대표적 인 관계중의 하나다. 포스코를 세계 일류기업으로 끌어올린 박태준, 그리고 그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신뢰했 던 박정희. 두 사람 간의 ‘완전한 신뢰’



는 한국의 근대 화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친 하나 의 사례다.

작가인 이대환 씨가 펴낸 ‘대한 민국의 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은 두 인물의 ‘위대한 인연’을 다룬다. 책은 박정희의 공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취처럼 남겨 둔, 아름다운 박정희와 박태준의 인 간관계에 초점을 둔다. 저자는 박태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15년간 매주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그가 들려줬던 ‘박통’ 과의 인간관계를 사실 그대로 담아낸 다. 〈도서출판 아시아·1만7000원〉 /박정희기자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꿀잠 경제학**=인형뽑기를 하다가 1만 원 이상 날려 본 적이 있다면? 매주 복권을 산다면? ‘행동경제학’이란 사람들이 경제 적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 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는 학문이다. 즉, 논 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 는 행동들에 숨겨진 근거를 찾는 과정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제시하고, 만화로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 문에 더욱 재미있게 행동경제학을 접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000원〉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1980년대 민주 화운동을 경험한 386세대이자 역사학 자 김경민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 주목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를 집필했 다. 20여 년 간의 시민운동 경험, 사회과학 계의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연구 성과, 한·중·일 역사 대화의 경험을 바탕 으로,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와 민주



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눈으 로 한국 민주주의의 맥락을 탐색했다.

〈책과함께·2만2000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가**=사랑하 기 전에 알아야 할 성과 생식, 우리의 몸 이 야기.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 천진하게 질문하던 어린 시절에서 몸이 성숙해져 가 는 심대를 거쳐 누군가는 사랑에 눈뜨며 내 몸의 새로운 감각을 열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 의 사랑을 배워간다. 우리 몸을 둘러싼 성 과 생식 이야기는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제 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가득하다. 〈구리·2만2000원〉

음악에 담긴 사회상과 법률 이야기

클래식 법정

조병선 지음

‘완벽한 사람’의 대명사로 꼽히는 클라라와 슈만의 혼인 소송은 유명 하다. 1839년 7월16일 슈만은 자신의 스승이자 클라라의 아버지인 비 크 교수를 대상으로 혼인 허가 소송 을 제기한다. 당시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스물 한살이 되 어야 했다. 클라라가 성인이 되려면 1년 2개월이 남았고, 비크 교수가 두 사람을 떼어놓을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에 빠진 슈만은 소송을 시작한 다. 두 사람은 소송 후 1년 58일이 지 난 뒤 결혼식을 올린다.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법 정 기록을 토대로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을 재조명하고 법을 통해서 시 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책 ‘클래식 법정’이 출간됐다. KBS 클래식 FM 인기 프로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에서 방송한 내용을 대폭 보강해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조병선 청주대 법학과 교수 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형 법을 공부하며 음악학을 배울 기회 를 가졌던 그는 ‘법과 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글을 써오고 있다.

저자는 해박한 음악 지식과 법 이 야기를 통해 음악가들이 사생활에서, 혹은 음악 작품 때문에 겪어야했던



송사와 그 사건이 음악 에 미친 영 향, 그들의 음악 안에 담긴 당시의 사회상과 법 률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푸치 니, 헨델 등 38명 음악가에 대한 44 개의 흥미진진한 법정 사례가 실려 있다. 민법, 상법, 종교법, 현재의 저 려움에 빠진 슈만은 소송을 시작한 사 건이다.

파가니니의 유해가 종교법 때문 에 사후 55년 동안이나 묻힐 곳을 찾 지 못하고 떠돌게 된 사연, 바그너가 끊임없이 현상수배 명단에 오르고 야반도주를 일삼는 이유, 30년 넘게 사랑했던 여인을 두고 사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리스트의 사연 등이 흥 미롭다. 그밖에 ‘카발레리아 루스티 카나’, ‘돈 카를로스’, ‘라보엠’, ‘마 솔피리’ 등 오페라 작품에 담긴 법과 시대의 단면도 들여다본다.

저자는 클래식과 법의 공통점으 로 둘 다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것들이 절실한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점을 들었다.

〈뮤진트리·2만2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한 걸음씩 알아가는 우주 수업**=앞으 로 다가올 ‘우주 시대’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해 우주 개발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담 았다. 최초의 로켓 발사부터 달 탐사할 소 한 아폴로 계획, 오늘날 민간 우주여행 소 식까지 우주 개발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 다. 책을 통해 우주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풀과바람·1만원〉



▲**고양이는 알고 있다!**=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양이 의 습성에 빗대 그린 동화집. 마음을 다 내

줄 것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어느 순간 날 을 세우고 쾅하니 뒤돌아서는 고양이의 묘 한 습성을 예리하게 포착해 친구,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에 존재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그리고 있다. 〈사계절출판사·9000원〉

▲**드라큘라 씨 괴물들을 부탁해!**=어린이 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괴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람들의 피를 즐겨 마 시는 드라큘라 백작부터 인간과 늑대를 합쳐 놓은 모습의 늑대 인간,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메두 사, 호박 얼굴을 한 괴물 책과 천 년 잠에

서 깨어난 미라까지. 이들이 인친공화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스콜라·1만원〉

▲**하늘을 쫓는 아이**=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이야기.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공장에서 일했 지만 학교에 가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 을 꾸었다. 비행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 쓰겠다는 것이었다. 기록은 어떻게 이 모 든 꿈을 꾸고 이를 수 있었을까? 〈스프북·9800원〉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총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이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본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항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태평양횃집 북구 면암로 139번길 45 두암동 광주병영 옆 자연산회 전문, 각종모임, 연회석 원비 대표 정진풍 ☎062)263-8862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당장앞) 경조화환, 동·서양단,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주)세원모터스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자동차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	이경숙갤러리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옆 친환경원목가구, 토틈대, 흙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062)224-288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예텐병원 옆 장영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서울표구점 북구 흥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관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영)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찞不理, 붕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	다나베움즈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입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맛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미락식당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방간장게장,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